

日帝下 濟州島 學校設立運動

양진건*

〈차례〉

- | | |
|---------------|--------------|
| 1. 개량서당 | 3. 공교육기관의 설립 |
| 2. 사립교육기관의 설립 | 4. 결론 |

일제하 학교설립운동은 이른바 교육구국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을사보호조약(1905)이후 합방(1910)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이는 동도서기론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근대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애국심 함양과 서양의 근대 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그 핵심은 사립학교였다. 이 시기를 두고 애국 계몽운동기라고도 불리는데, 교육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전국에 걸쳐 5,000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제주도에서도 “학교라는 것은 오직 나라의 기초요 백성을 가르치는 근본이다. 나라의 흥폐와 재야의 백성들은 교육 한가지에 달려 있으니 이로써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군수, 재상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마음에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13도 340여 주에 학교의 바람이 왕성하게 일어나니 장래 유신의 방략도 또한 무성하게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취지 아래 이 시기에 학교설립운동이 본격화된다.

본 고에서는 제주도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인재를 키우고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도적으로 이루어진 사립학교는 물론 일반 공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과 동참을 제도사적 측면에서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 私立濟州義信學校費基本金捐義文 1907년, “學校者 惟國之基礎 教民之根本也 國家興廢 人民之野 專在於教育一事 是以 上自朝家 下及守宰 莫不眷眷於次 現今十三道三百四十餘州 學校之風 蔚然興之 將來維新之方其 亦盛實乎”

1. 개량서당

가. 개량서당의 설치

1919년 이후의 문화정치 기간은 여러 가지 개량적인 술책이 담겨있기는 했지만 제주도의 지식인들은 문화정치로 열려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그들은 교육을 통해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소위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계몽운동을 열렬히 전개하여 제주도민의 각성에 노력하는 한편 사립학교 개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20년 사립 명신학교의 설립을 필두로 각지에 사립보통학교(私立普通學校), 개량서당(改良書堂), 의숙(義塾), 야학(夜學)이 속속 설립되었다.

특히 개량서당이 3·1운동 직후 많이 설치되어 공립학교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립학교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가르쳤는데 자금은 수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1923년도 말 당시 개량서당은 공립학교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립보통학교가 9개교 34학급으로서 아동수가 2,499명인데 반해 개량서당은 47개교로서 아동수는 3,432명에 달하고 있었다.²⁾

이렇듯 개량서당은 근대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보조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농촌지역이나 빈한(貧寒)한 서민층에게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위치를 굳혔던 것이다.

개량서당은 교과에 있어서 근대교과를 도입하고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의 양양에 공헌을 하였는데 가장 큰 공헌은 교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가능하게 한 점이다. 이렇게 개량서당이 민족교육 및 초등교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수가 급증하게 되자 관망하던 일제는 그 방침을 변경, 「서당규칙」같은 것을 마련하여 탄압을 시작하였다.

1918년에 제정된 「서당규칙」은 일어와 산술을 가르치도록 1929년에 다시 개정됨으로써 점차 서당은 민족교육 보루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공립보통학교나 간이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총량한 일본인화라는 동화교육의 도구로 철저히 전락하게 된다. 일제는 개량서당의 교과과정을 통제하고 개량서당을 일제가 직접 지배하는 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였다.

2) 『未開の寶庫, 濟州島』, pp.40~42.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일제의 초등교육을 통한 제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 것이며 철저한 것인지를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이렇듯 집요하게 제국신민화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어떤 형식의 교육이든 그것은 모두 조선인들의 민족적 기반을 말살하는 침략적 전술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라는 문명적 시설의 보급과 발전은 거꾸로 조선인의 정신적 각성을 방해하는 조선통치의 유력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나. 개량서당(改良書堂)의 전환

제주도에서도 일찍부터 한학훈도 중심의 전통적인 서당교육이 있어 왔으며 여기에다 개량서당까지 합세하여 서당교육에 관한 한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열기나 내용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서당들이 근대학교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제주도의 근대교육이라는 것이 서당교육이라는 물적 토대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개량서당을 모체로 한 초등교육기관의 탄생은 일제시대 전체에 걸쳐 비교적 많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개량서당 일람표와 같다.

일람표에서 보듯이 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 대부분이 개량서당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교육의 내재적 발전 법칙을 규명하는 데 있어 제주도 근대교육의 제 특징과 그 지향점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시사이다. '개량서당의 전환'이라는 것이 '식민지 제도교육의 구축'이라는 맥락과 곧바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환의 외연과 내포를 조심스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맹아로서 서당교육의 역할은 그것이 식민지 제도교육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 반봉건교육정책에 의해 식민지 엘리트를 배타적으로 재생산하는 반민족적 교육기구로 고착됨으로써 철저히 왜곡되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교육의 저류에 있어서는 민족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개량서당의 현황

물론 근대교육기관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개량서당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한 지역에 서당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어서 1면 1개교 범위로 보통학교가 설립되기 위해 모체가 되었던 서당 외에는 전환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서당의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남아 있던 서당의 예로 온평리 서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온평리의 서당은 상,하동에 있었는데 생도수가 각 25명씩이었다. 교육내용은 강독, 습자, 제술 등이 있었으며 강독에 주로 의존하여 『천자문』, 『명심보감』, 『대학』 등을 배웠고 상동은 여기에 『지리서』가 첨가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講)을 보는데 거기서 일등을 하면 떡과 술을 가져가서 훈장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훈장은 무보수였으나 추수 때 학생들이 보리, 조, 곡물로 약 2말 정도 가져갔다. 서당에서 2년 교육을 받으면 여유있는 사람들은 이웃 마을에 있는 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³⁾

일제의 통치가 본격화가 되면서부터는 서당교육은 그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노출시키게 된다. 많은 개량서당들이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었고, 남아 있는 것들은 「서당규칙」으로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당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도의 경우 1929년도에는 서당수가 53개에 2,360명의 생도가 있었지만⁴⁾ 1937년도에는 그 수가 69개로 늘고 생도수 역시 3,254명⁵⁾으로 증가를 보였다. 그런가하면 1939년에 서당수는 59개로 줄어드나 생도수는 3,698명⁶⁾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일제의 온존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이러한 정책은 서당교육이라는 것이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 구태의연하고 실용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하여 그 존재가 그들의 식민지교육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육시설 미비를 보충해 주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다. 이는 규모와 내실이 있는 서당들은 이미 보통학교로 전환시키거나 「서당규칙」으로 규제된 데서 오는 일종의 방임책이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일제하의 조선인 교육이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받게 되자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국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당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된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당을 민족교육 최후의 보루로 인식함에 따라 취해진 이러한 처사는 마을의 서당을 보통학교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에 지식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던 구우면의 신창서당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어떻든 개량서당 덕분에 제주도 교육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인구의 저변 확대는 근대교육의 또 다른 특징인데 그러한 특징을 전통교육

3)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 『溫平里誌』, 1991, p.119.

4) 『濟州島便覽』, pp.22-25.

5) 『濟州島勢要覽』, pp.10-12.

6) 『濟州島勢要覽』, pp.17-22.

日帝下 濟州島 學校設立運動

〈개량서당일람〉*

서 당 명	변 경 명	설립년	변경년	비 고
義貞學塾	조천보통학교	1903	1920	
私立漢一學塾	사립대정학교	1908	1911	
徽文義塾	외도공립심상소학교	1914	1939	
普明塾	구우공립보통학교 한림공립심상소학교	1914	1923 1938	
永信私塾	사립하도보통학교	1918	1923	
光明義塾	동광간이학교	1918	1934	동광개량서당
昌興私塾	조천동공립보통학교	1920	1943	
涯月共進私塾	신우공립보통학교	1920	1923	
進修義塾	좌면공립보통학교 중문공립보통학교	1920	1927 1935	
書堂	구좌공립보통학교	1921	1923	서당명 불명
武陵疑問義塾	무릉심상소학교	1922	1940	
辛酉義塾	가과공립국민학교	1922	1946	
普成書堂	어도간이학교 어도공립국민학교	1923	1943 1943	
禾北義塾	화북사립보통학교 사립화북심상소학교 화북공립국민학교	1925	1927 1939 1943	
育英義塾	도순공립심상소학교	1929	1940	
演明書堂	사립연평심상소학교	1929	1938	
倪來義塾	예래간이학교	1930	1944	
光明書堂	광령간이학교	1930	1941	
孝敦書堂	신효심상소학교 신효국민학교	1931	1938 1941	
今岳書堂	금악공립국민학교	1931	1944	
三共書堂	아라간이학교	1933	1941	
創林書堂	도두사립보통학교	1933	1936	
西廣書堂	서광간이강습소	1934	1939	
仁明書堂	삼양공립심상소학교	1934	1939	
造水改良書堂	사립신성학교	1934	1938	
大東書堂	사립보성심상소학교	1935	1940	
吐坪書堂	토평공립국민학교	1935	1946	
大屹共同書堂	대흘공립국민학교	1938	1941	
普明學舍, 永信學舍	사립중앙보통학교		1924	설립년 불명
里書堂, 부투왓書堂	서호간이학교		1934	설립년 불명
김풍헌書堂, 가시밭書堂	서호공립국민학교		1943	

*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것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당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사실이다. 특히 서당교육에 여성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었음은 여러 면에서 시사적이다. 1930년만 하더라도 52개 서당에 여자생도가 27명⁷⁾에 불과했지만 1938년에는 63개의 서당에 296명⁸⁾ 1939년에는 59개 서당에 418명⁹⁾이라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도 1939년에 처음으로 여교원이 1명 나타나는데 여자생도의 대폭적인 증가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여교원이 개량서당에 진출한 것은 1917년이 처음이며 이후 계속 증가되다가 1930년, 1934년 그리고 1939년도에 급증¹⁰⁾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1939년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2. 사립교육기관의 설립

가. 사립명신학교(私立明信學校)

사립명신학교는 1919년 말에 개설되어 여성에 대한 문맹퇴치운동과 사회계몽 및 부녀에게 필요한 수공 등을 지도하던 명신야학소와 3·1운동 당시 서울에서 돌아온 최정숙 등이 가톨릭 신자를 중심으로 폐교된 신성여학교를 계승하고, 여성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만든 여수원(女修園) 야학소의 통합이 그 모태가 되었는데 1920년 김응두(金應斗), 송택훈(宋澤薰), 홍순재(洪淳宰), 오유일(吳有一), 김택수(金澤銖), 한상호(韓相鎬), 이국빈(李國彬), 고자환(高子煥), 박교훈(朴喬燾) 등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초대교장에는 김응두였으며 2대 교장에는 오유일이었는데 교사로는 송택훈, 박교훈, 한상호, 김택주, 고자환 등이 활동하였고 강사로는 최정숙(崔貞淑), 강평국(姜平國) 두 여성과 김명식(金明植), 이덕빈(李德彬), 최남식(崔南植) 등이 활동하였다. 학교는 이도동 소재의 5천여 평에 4개의 교실과 1개의 관리실을 갖춘 만큼

7) 『全羅南道事情誌』, pp.45-60.

8) 『全羅南道の教育と宗教』, pp.12-18.

9) 『濟州島勢要覽』, pp.28-32.

10) 『朝鮮總督部 統計年報』, pp.22-29.

규모가 컸었는데 이 땅은 송택훈이 무료로 임대제공한 것으로서 기타 경비는 설립유공인들의 자비를 염출했고 교사들도 무보수가 대부분이었다.

편제는 4년제 남녀공학으로서 1개 학년의 수용인원은 40명이었다. 과목은 보통학교의 과정과 동일하되 한문이나 조선어, 산술, 지리 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간섭이 강화되고 교육재정의 곤란 등으로 부득이 1922년 갑자의숙(甲子義塾)이라 개칭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1925년 초에 폐교를 하게 된다.¹¹⁾

명신학교의 폐교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어려운 교육재정 때문이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이유를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통해 사립학교의 시설보완을 독려하였으며 시설보완이 미흡할 때는 폐교조치를 취함으로써 열악한 사립학교들을 정비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는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기관들을 독려함으로써 시설을 확충케 하고 보다 근대학교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명신학교의 사정이 폐교를 할 만큼 어려웠는가 그리고 어려웠다면 분명히 시설보완이 미흡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사립학교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보완책은 강조되었고 사립학교의 진흥을 위한 사립학교 보조책 같은 것은 배풀어지지 못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명신학교는 당시 도내에서는 신성여학교가 폐교된 이래 처음으로 출발을 한 사립학교로서 보조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의 결론은 결국 명신학교의 폐교는 미흡한 시설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령」에 의한 폐교를 위한 폐교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의 성향은 일제의 신경을 건드릴만 했고 학교의 개교 배경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나. 기타 사립초등학교

대표적인 사립초등교육기관으로는 1922년 6월에 인가를 받고 애월면에 개설된 일신(日新)학교와 1923년 4월에 인가되어 구좌면에 개설된 하도(下道)보통학교와 또한 1924년 5월에 인가된 중앙(中央)보통학교 그리고 1920년 7월에 인가된 제주읍의 화북(禾北)보통학교 등이 있었다. 이들 학교의 공통된 특징은 그 설립이 모두 3·1운동 이후라는 점과 마을 유지들의 공로가 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몇 가

11)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pp.70~71.

지 중요한 시사가 담겨있다. 다른 무엇보다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치라는 유희적 시기를 교육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에는 마을의 개명된 지식인들의 활약이 주효했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1911년에 공포하였던 「사립학교규칙」을 그들의 계획대로 사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대폭 수정하여 1915년 3월 「개정 사립학교규칙」을 다시 공포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리하여 1910년에 2,080교이던 사립학교가 1915년에는 1,154교로 다시 1923년에는 649교로 대폭 감소되는데 대체로 5년마다 반으로 줄었던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만약 3·1운동이라는 기폭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면 제주도에서의 1920년대의 사립학교 개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명신학교 같은 사립학교는 폐교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사립학교를 인가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의아케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화북학교의 설립과정을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도 없지 않다.

1) 화북학교(禾北學校)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설립은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독지가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래자본에 의해서 뿐이었다. 그런데 화북사립보통학교(禾北私立普通學校)¹²⁾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열의에 의해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주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학교가 설립된 예는 많지만 화북사립보통학교의 설립은 그 가운데 모범적이다.

화북의 주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지식을 교육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자 마을 유지들은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누구나 자기의 경제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약간씩의 성금을 내었는데 1921년부터 시작되어 1923년에 경에는 2,179만84전이라는 많은 기금을 모을 수가 있었다.¹³⁾ 기금 모금은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는 학교운영비 때문이었으며 1928년에는 그 기금을 마을별로 할당하여 동수(洞首) 책임하에 수금하도록 하기도 했는데 이때 미납자에게는 차용증서를 받기도 하였다.

12) 白子勳, “禾北里 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耽羅文化』 第10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0, 參照.

拙稿, “禾北의 教學文化”, 『耽羅文化』 第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參照.

13) 「大正拾貳年 癸亥正月拾日 學務財政明細 一金貳千壹百七拾九圓八拾四錢也 內譯 借金 證書貳拾壹圓 貳千貳拾八圓七拾五錢 現時殘金 壹百五拾壹圓〇九錢」.

기금 모금이라는 것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이었겠지만 그러한 재정 부담은 물론, 나아가 교사(校舍)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터를 닦고 출력을 하여 한라산에서 나무를 해 오고 돌을 운반하는 등의 육체적 부담도 마다 않고 열의를 보인 끝에 옛 화북진(禾北鎭) 터와 화북의 일부 공유지를 기본 자산으로 하여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 2개의 교사도 지었으며 마을의 몇 안되는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 교사가 되어 1926년 7월 마침내 주민들의 힘으로 화북사립보통학교를 훌륭히 설립하였던 것이다.

화북의 주민들은 자녀들을 이 곳에 보내고 성인들은 화북학교 안에 다시 야학을 개설, 공부를 하였는데 이 화북학교를 1943년 일제당국이 무상으로 접수한 것이 화북공립국민학교인 것이다. 일제가 학교를 접수하여 공립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화북학교 설립을 둘러싼 이러한 주민들의 공동체적 강고성 때문이다.

화북학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력을 모아 세운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학교의 설립보다 그 의의가 크다. 사립명신학교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운영됨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노정됨으로써 결국 폐교가 되었다고 본다면 화북학교의 경우는 공동체적 결속력을 모태로 출발했고, 운영되었다는 면에서 명신학교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사립학교였다고도 볼 수 있다.

화북이 일찍부터 신학문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제주관문 역할을 했었던 입지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화북학교 설립 배경에는 1925년에 개설된 화북의숙(禾北義塾)이 있으며 그 존재가 부인되고는 있으나¹⁴⁾ 입지적인 조건으로 인한 각성이 일찍부터 있었다는 이유에서 화북의숙 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개량서당류의 교육활동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2) 기타

화북과 유사한 입장이 조천인데 조천의 경우는 화북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03년

14) 禾北改良私塾이 1908년에 설립되었고(濟州教育沿革誌). 또 禾北寧信(新)學校(濟州教育史)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나 白子勳은 그 근거가 없음을 들어 禾北義塾을 그 출발점으로 보았는데 이는 설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도 關門으로서의 영향에서 밝혔듯이 新學問에 대한 수용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면 禾北義塾 이전의 교육활동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주농업학교 입학생 가운데 화북의 보통학교나 영신학교 또는 私塾 졸업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오히려 당시 화북에는 교육기관이 3~4개 정도 공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에 의정학숙을 신학문 보급을 위해 조천리 연북정(戀北亭)에 개설하였던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협조하에 운영되다 재정난으로 폐교되긴 했지만 이 학교 역시 주민들의 중력에 의존함이 컸으며 또한 이것은 1908년에 개설되었던 사립한일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밖의 사립교육기관으로는 1938년 4월에 한림면에 설립된 조수심상소학교(造水尋常小學校)와 구좌면의 연평(演坪)심상소학교 그리고 1940년 4월에 설립된 귀덕(歸德)심상소학교와 하귀(下貴)심상소학교, 고산(高山)심상소학교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후일 공립학교로 개편된다.

〈사립학교일람〉*

1927년 현재

설립	교명	연한	설립연도	학급	학 생			조력자
					남	여	계	
사립	日新	4	1922. 6	3	187	0	187	白昌由
·	下道	4	1923.11	4	171	8	179	康共七
·	中央	4	1924.11	4	172	5	177	洪淳中
·	禾北	4	1926. 7	4	169	7	176	康基業

*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것임

다. 종교계 사립학교

1) 가톨릭계

제주도 근대여성교육기관으로는 1909년 10월 천주교 신부 구마슬(具瑪瑟)이 설립한 종교계 사립학교인 신성여학교가 효시이다. 4년의 초등과정과 1년의 중등과정 체제를 갖추었는데 구마슬 신부가 도내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딸들을 보내주도록 간청했고 서울에서 수녀 두 사람을 초빙하여 가가호호 방문하며 학생들을 모집, 교과서와 학용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1914년에 제1회 졸업식이 있었으며 다섯 명을 배출하였다. 2회에도 졸업생이 6명 수준이었지만 3회에는 16명으로 대폭 증가되는데 도내의 여성교육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된다.

일찍부터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함으로써 1908년 당시 3, 4천을 헤아리고 있던 사립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립학교를 정담정론(政談政論)을 일삼는 소위 정치학교와 종교를 매개로 하는 종교학교로 구분, 종교학

교를 사립학교령에 복종하도록 하면서 정치학교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¹⁵⁾ 사학을 그들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1911년에 만든 「사립학교규칙」을 대폭 수정하여 1915년에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게 되는데 여태껏 어느 정도 치외법권에 속해 있던 종교계 학교에 대해 교육과 종교의 분리라는 구실 아래 탄압이 가해졌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신성여학교도 3회의 졸업생만을 배출한 채 1916년 폐교의 위기를 맞게 된다.

개신교와 비교해 볼 때 당시 가톨릭의 교육사업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1901년의 제주도 신유민란으로 인한 가톨릭의 파란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가톨릭계의 신성여학교가 개교되었다는 것은 제주교육사에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가톨릭의 교육사업과 문화활동이 지향하는 상부상조의 활동정신은 제주도 여성 특유의 전통적인 자주적 품성과도 일치되는 바가 없지 않아서 제주도 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촉구함에 있어서 신성여학교가 수행한 선구적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2) 개신교계(改新敎系)

종교계 학교로서 가톨릭계에 의해 신성여학교가 개교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선교사에 의한 학교의 설립은 개화기의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육지부에서는 개신교계 학교가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많이 설립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종교계 학교로는 가톨릭계 신성여학교가 먼저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교육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개신교 계통의 학교는 1920년대 들어 생기기에는 하나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질 못했다.

개신교계는 본격적인 교육사업보다는 문맹퇴치운동 차원에서 주로 야학을 개설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1910년 6년제로 개설된 성안교회의 영흥(永興)야간학교와 1920년 개설된 모슬포교회의 광선의숙(光鮮義塾), 또한 1922년에 개설된 협재교회의 영재(英才)야간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신교계의 노력은 일제하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문맹퇴치와 관련한 성인교육으로서 사회교육의 한 단면을 반영해 주는 사례로써 좋은 참고가 된다.

또한 성안교회에서는 1924년에 중앙(中央)유치원을 개설하였는데 개원 당시에는 1학급에 교사가 1명, 원생수가 남자 12명, 여자 18명으로 30명¹⁶⁾이었지만 1927년

15) 小澤有作, 『民族教育論』, 東京: 明治圖書出版株式會社, 1982, p.94.

16) 『濟州邑勢』, 1936, pp.32-34.

도 당시에는 교사가 2명이고 남자 19명, 여자 22명 도합 41명¹⁷⁾으로 도내의 호응도가 비교적 컸음을 반영하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다. 중앙유치원은 제주도 최초의 유치원으로 도내 개신교계 교육활동 가운데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3. 공교육기관의 설립

가. 초등교육기관

1) 보통학교

이밖에 일제는 문화창달 정책으로 각급 보통학교를 세워 상승하는 조선인의 교육열에 부응하려 하였는데 1919년부터 8년 계획으로 3면 1개교에 이어 1면 1개교 비율로 보통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1907년에 제주공립보통학교, 1909년에 정의공립보통학교 그리고 1911년에 대정공립보통학교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어 1920년에 서귀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고 1921년에는 조천공립보통학교, 1923년에는 명월리에 있던 사립 구우면보통학교가 구우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고 애월리에 신우공립보통학교가, 금릉리에 구좌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성산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 것도 이때였다.¹⁸⁾ 1923년도말을 기준으로 할 때 도내의 공립보통학교는 9개교 34학급으로 교원수가 42명이었으며 유자격교사와 무자격교사가 각각 반반이었다. 학생수는 2,499명이었고 총경비 10만원을 투자하였다.¹⁹⁾ 1924년에는 서중공립보통학교가 1925년에는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안덕면 소재의 안덕보통학교가 1930년 4월에, 조천면의 함덕보통학교와 표선면의 성읍보통학교가 1937년 7월에, 한림면의 신창보통학교와 구좌면의 세화보통학교 그리고 서귀면의 신희보통학교가 1938년 5월에 각각 개교됨으로써 제주도는 일면일교(一面一校)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1927년에 898명이던 제주공립보통학교 학생수가 1938

17) 『全羅南道事情誌』, 1927, pp.40-42.

18) 『全羅南道事情誌』, 1927, p.40.

19) 『全羅南道事情誌』, 1927, p.40.

년에는 남학생 847명, 여학생 340명 모두 1187명으로 증가하며 학급규모도 17학급으로 2반이 증가한다. 다른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를테면 1927년 당시 학생수가 92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였던 중문면 소재의 좌면보통학교의 경우 1938년에는 교명이 중문보통학교로 바뀌면서 여학생 29명을 포함 226명을 기록하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²⁰⁾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일제의 서당교육 탄압책 때문이었는데 개량서당을 보통학교 체제로 바꿔 인가하거나 「서당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서당 인원수를 3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서적을 제한하는 등 개량서당의 교육기능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서당교육의 조건 가운데 「서당이 있는 곳에 근대학교인 보통학교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자녀들은 보통학교에 입학하도록 계도하고 방해하지 말 것」²¹⁾ 과 같은 항목은 그러한 제한 조치의 대표적인 예였다.

〈보통학교일람〉*

1927년 현재

설립	교명	연한	설립년도	학급	학생			소재지
					남	여	계	
공립	제주	6	1907. 5	15	750	148	898	제주읍
·	정의	4	1909. 3	4	207	5	212	표선면
·	대정	4	1911. 6	6	189	1	190	대정면
·	서귀	4	1920.10	4	188	0	188	서귀면
·	조천	6	1921.10	7	354	34	388	조천면
·	구우	4	1923. 9	6	322	16	338	한림면
·	신우	4	1923. 9	5	287	24	311	애월면
·	성산	4	1923. 9	5	237	10	247	성산면
·	구좌	4	1923. 9	5	252	0	252	구좌면
·	서중	4	1924.11	4	151	0	151	남원면
·	추자	4	1925. 9	4	110	7	107	추자면
·	좌면	4	1927. 4	2	92	0	92	중문면
부설	모슬포		1927. 4	2	91	2	93	대정면
·	松操		1923. 4	2	140	0	140	조천면

*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것임

20) 『全羅南道事情誌』, 1927, p.40.

21) 『書堂管理件』, 1908年 8月 28日 學部訓令 第3號

이로 인해 개량서당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초등교육 지원자들은 자연 보통학교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서당규칙」이 제정되던 191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개량서당의 생도수가 260,975명으로 보통학교 학생수 76,061명에 비해 월등하였는데 1938년경에는 전자가 172,456명이고 후자가 1,081,908명²²⁾으로 완전히 역전된 데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제주보통학교나 서귀보통학교 그리고 성산보통학교, 서중보통학교, 추자보통학교 등은 애초부터 보통학교 편제로 설립이 된 것이지만 다른 학교들은 대개 개량서당을 그 모체로 하였다. 이를테면 대정보통학교는 1908년 10월 19일에 개교한 사립한일(韓一)학교에서 1911년 2월 1일 사립대정학교로 개편인가 되었던 것이 1911년 11월 1일 개칭되었으며, 조천보통학교 역시 1903년 3월에 개설되었던 의정학숙(義貞學塾)과 그것을 승계한 조천의숙(朝天義塾)을 모체로 1920년 7월 개교하였다. 그런가하면 당시 제주도의 1읍 12면 중에서 23개 리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면이었던 구우면(한림읍)에서 한 개뿐이었던 구우보통학교는 1914년에 개설되었던 보명숙(普明塾)을 모체로 하였으며 구좌보통학교는 1921년 김녕진풍회가 동김녕과 서김녕에 개설하였던 개량서당을 발판으로 하였다. 좌면보통학교 역시 1920년에 개설된 진수의숙(進修義塾)이라는 개량서당이 모체였다. 우리는 여기서 공립 보통학교의 모체는 사립의 개량서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초등교육기관의 변모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한 근대 공교육제도로서의 초등교육법체가 「소학교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포된 것은 1895년 7월 19일 칙령 제145호에 의해서였다. 「소학교령」에서의 편제는 초등교육단계의 소학교를 심상(尋常)과 고등(高等)의 2개과로 나누고 수업연한을 전자는 3년 또는 2년으로 하고 후자는 3년으로 하였다. 학교 명칭의 관두(冠頭)에는 공립, 사립 등으로 설립 종별을 표시케 하였다. 그러나 1906년 8월 27일의 「보통교육령」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구분은 사라지고 보통학교를 단일과정으로 하는 동시에 수업연한도 4년으로 단일화하였다.

1938년 3월 칙령 제103호로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일제가 동화정책으로 내세운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교육의 목적인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래의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라 개칭하여 일본

22)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種 初等學校 累計, 書堂 累計, 參照.

인 학교의 명칭과 동일하게 하였다.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당분간 4년으로 존속시켰다. 1941년 3월에 「국민학교규정」이 공포됨으로써 모든 초등학교는 국민학교(國民學校)로 개칭되게 된다.

3) 간이학교(簡易學校)

1922년에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사정에 따라 4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하여 실제 4년제 보통학교가 많았는데 여기에다 보통학교의 증설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초등보통교육의 보급을 위해, 특히 일본어 습득을 위해 1934년에는 수업연한 2년의 간이학교를 설치하여 식민지 교육의 제도적 확장을 이루었다. 간이학교가 설치된 데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 개량서당을 통한 서당교육의 왕성한 증가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1934년 애월면 소재의 고성간이학교와 서귀면에 서호간이학교를 출발로 1939년도까지 7개교의 간이학교가 운영되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간이학교일람〉*

교 명	면 별	개 교 일	학 생		
			남	여	계
고 성 간 이 학 교	애 월 면	1934. 5. 1	61	2	63
서 호 간 이 학 교	서 귀 면	1934. 5. 1	41	15	56
난 산 간 이 학 교	성 산 면	1935. 6.20	61	-	61
선 홀 간 이 학 교	조 천 면	1936. 5. 1	60	19	79
용 담 간 이 학 교	제 주 읍	1938. 5.10	53	17	70
송 당 간 이 학 교	구 좌 면	1938. 6. 5	38	-	38
금 악 간 이 학 교	한 립 면	1938. 7. 5	53	17	70

*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것임

1940년에 들어서면서 애월면의 어도간이학교와 대정면의 구억간이학교 그리고 애월면의 광령간이학교가 설치되고 이어 1941년에는 제주읍에 아라간이학교가 남원면에 의귀간이학교 그리고 조천면에 대홀간이학교가 설치되어 모두 13개로 확대된다. 1943년부터는 모두가 6년제 국민학교로 개편 승격되게 된다.

간이학교는 대개의 경우는 처음부터 간이학교 체제로 설립되었지만 보통학교처

림 개량서당을 모체로 한 경우도 많았다. 어도간이학교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1923년 중화동 도갓집 자리에 보성서당을 설립하였는데 한문선생 한 사람과 신학문선생 한 사람 등 두 사람을 두어 가르쳤으며 초기의 숙장은 강하병(姜夏柄)이었다. 1936년 어도 1구의 제일친우회에서 송금해 온 것과 어도리 친우회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보성서당을 크게 넓히게 되어 1940년에는 간이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고 박의광이 교장이 되는데 이것이 1943년에는 어도공립국민학교로 인가된다.

이런 경우는 아라간이학교도 마찬가지여서 1928년 아라1리(我羅一里) 지역에 개량서당이 개설되었는데 호응이 좋아짐에 따라 1933년에는 삼공서당(三共書堂)으로 발전되고 이를 모체로 1941년에 아라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해방 후 1945년 10월 아라국민학교로 승격된다.

4) 초등교육 후원단체

초등교육기관들의 설립이나 운영은 일제의 시혜(施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교육의 독특한 내용이며 당대의 교육을 가능케하는 기본 원동력이자 견인차였다.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후원단체는 화북보통학교의 학교운영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1918년에 결성되었던 유지회(有志會)라고 할 수 있다. 유지회의 대표는 김문준(金文準)이었다.

김문준은 3·1운동 당시에는 팽창하는 청년들의 향학열을 지도, 조직하기 위하여 5, 6개소에 개량서당 형식의 사립학교를 창설하는 등 왕성한 교육운동을 펼쳤던 수원농림학교 출신의 지식인²³⁾으로서 화북사립보통학교 보습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북촌출신 노동자 친목회인 신성회 같은 모임에 참여하여 독립사상을 일깨우던 민족주의자였다.

김녕보통학교나 구좌중앙보통학교 경우처럼 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설립을 위한 기금모금이나 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되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해체되었다. 이를 정리²⁴⁾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解放日報』, 1946. 4. 19.

24)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1979, p.656.

〈초등학교 후원회 상황〉*

학교명	설립	후원단체	대표자	활동내용
화북	1918	유지회	김문준	학교운영기금모금
삼양	1929	교육기성회	김용혁	학교설립기금모금
선홍	1931~1945	후원회	김완현	학교설립기금모금
북촌	1941~1944	기성회	이봉희	학교설립경지확보
김녕	1929	진흥회	김신흥	학교설립기금모금, 경지확보, 교실신축
	1930	후원회	한석필	경지확장, 부속건물신축, 교실증축
	1936	·	김기봉	학교운영지원, 관사신축
	1940	·	김병선	학교운영지원
구좌중앙	1923~1945	학교유지회	홍순중	사립중앙보통학교설립추진, 경지확보
도순	1940~1941	후원회	고경원	도순심상소학교설립추진, 경지확보, 교실신축
효돈	1943	·	김희명	학교설립기금모금
고산	1940	기성회	고승구	학교설립인가추진, 경지확보
신창	1933	학교후원회	양승운	경지확보, 교실신축
귀덕	1941~1942	기성회	홍순옥	학교신축
애월	1934	연장회		경지확보
	1940	보호자회		경지회사
광령	1941	교육후원회	양병열	경지확보

*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것임

나. 중등교육기관

1) 제주농업학교

사립신학교를 모체로 공립제주농림학교가 1910년 5월 개교하면서 도내 최초의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막중한 시대적 소임을 천명하게 된다. 비록 그것이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근대 중등교육제도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교육사의 기념비적인 출발임에는 분명하였다. 제주농업학교의 개교는 1909년의 「실업학교령」에 의거한 것인데 이로써 각종 실업학교들이 학부의 통제 밑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시의 실업교육의 목적은 「권농일사(勸農一事)에만 지(止)함이 아니라 어상어공(於商於工)에 구기이용후생(苟其利用厚生)의 도(道)에 협합(協合)하고 민이국익(民利國益)에 자(資)할 자는 차(此)의 보급 발달을 진려(振勵)코자 하심에 재(在)함」²⁵⁾에 있다고 하여 농상공의 실업교육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후생에 기여케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데 실업교육을 진흥코자 하는 참뜻이 들어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 「실업학교령」은 실업학교의 목적을 「실업에 종사함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 두고 있다고 하고 그 학교의 종류를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실업보습학교로 나누고 있다. 수업연한은 3년이며 사정에 따라 1년 이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도 하였다. 그리고 수업연한을 2년 이내로 하는 속성과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입학연령과 자격은 12세 이상인 자와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나 속성과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하였다.

교과는 본과인 경우 실업에 관한 교과 이외에 수신, 국어 및 한문, 일어, 수학, 이과를 공통으로 듣게 하여야 하나 그 중에서 수학과 이과는 제외할 수 있으며 지리, 역사, 도화, 법규, 통계, 측량, 체조, 기타 등의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을 위한 실업학교의 교과목은 기후, 토양, 수리(水利), 비료, 농구, 작물, 원예, 병충해, 농산제조, 양금(養禽), 양잠 및 제종(製種), 과수(樹)재배, 제사(製絲), 조립, 임산제조, 양축(養畜), 수의(獸醫), 어로(漁撈), 양식(養殖), 채조(採藻), 수산제조, 기타 등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1909년 7월에 들어 전면적인 학교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으나 실업학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실업학교령」의 제정에 따라 학부고시를 비롯 지방관서의 고시에 의하여 전국 각지에 실업학교가 속속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는 1910년 5월 2일 공립제주농림학교(公立濟州農林學校)가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수업연한은 본과 3년, 속성과는 1년이었다.

그러나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자 이에 의거 제주공립보통학교 부설의 2년제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濟州公立簡易農業學校)로 개편되고 1920년 10월 3년제 농업학교(農業學校)로 환원되기까지 간이학교 체제가 계속되었다. 3년제 농업학교 체제였던 1924년의 입시에는 모집정원 40명에 173명이 지원하는 경쟁률을 보일 만큼 도내의 관심이 컸는데 당시 4년제와 6년제의 보통학교 졸업생들이 같이

25) 『實業學校施行上の注意事項』, 1909年 7月 16日 學部訓令 第7號, 序文, 參照.

응시를 했던 결과였다. 따라서 불합격자 가운데 30명을 선발, 제농부설학교에 입학시켜 1년 과정으로 기초교육을 보충시킨 뒤 신입생 응모에 다시 응시케 하였다.

3년제 농업학교 체제는 비교적 오래 지속되다가 1940년 4월 5년제로 승격되었고 3학년에 진급하면서 농과, 축산과로 전공이 분과되었으나 전쟁수행을 위한 인력동원책으로 1943년의 제4차 「조선교육령」에 의거 4년제로 다시 변경되었다. 1944년에 축산과는 수의축산과로 개칭되었다.

2) 농업실수학교(農業實修學校)

통칭 서귀실수학교로 불리웠던 이 학교는 실업보습학교로서 1936년 5월 29일 개설되었는데 수업연한은 1년이며 재학생은 35명 정도의 소규모 실업학교였다. 1910년 4월에 학부령 1호로 공포된 「실업보습학교규정」을 통해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에 종사함에 수요(須要)한 교육을 시(施)함」이라는 목적으로 밝혔는데 원래 수업연한은 2년 이내이며 학생이 편리한 시간 또는 계절에 맞추어 수업을 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수업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보통학교를 비롯 실업학교 그 밖에 여러 학교에 부설할 수가 있었으나 제주농업실수학교는 부설학교로서가 아니라 독립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수산, 국어 및 한문, 일어, 산술, 실업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나 국어 및 한문, 일어, 산술 등을 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업에 관계되는 과목은 ?실업학교령? 제2조2항에 있는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고 하고 입학자격에 관하여서는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게 하였다.

「실업학교보습규정」은 1935년에 총독부 제52호로 개정이 되었었는데 농업을 교수하는 실업보습학교는 입학자격이나 교수시간 등에 따라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주농업실수학교는 1년제로 운영이 되다가 1943년 4월에 2년제로 개편 승격되었으며 해방후에는 서귀초급중학교로 개편 인가를 보았던 것이다.

3) 학교설립의 허실

중등교육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등교육기관 설립 도모하였던 노력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중등학술강습회(濟州中等學術講習會)의 활동으로 이 강습회는 일명 제주중학강습원이라고도 불렸으며 제주도 최초의 중등교육강습소 역할을 하였다. 강습소 활동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중학교 과정의 강습을 시행하면서 정규 중학교 설치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이다.

학교설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성회가 조직되고 제주 관음사 신도들을 중심으로 기금 모금활동이 전개되었으나 결국은 목표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학교 설립계획은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설립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은 그 계획의 무모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계획이 무모했다는 말은 주민들의 동의를 창출하지 못했고 따라서 계획에 대한 동조자를 규합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증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기성회가 기금모금을 위해 양홍기(梁洪基)와 홍순령(洪淳寧)이 도일(度日)하자 일본내 제주인들이 보여준 냉소적인 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날그날 연명해 가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향리사업의 기획을 남발하여 돈을 요구하는 지방인사들은 착각이 심한 자들이라는 통렬한 비판²⁶⁾은 중학교 설립계획이 동의창출 과정이 없이 일부 지방인사들에 의해 계획된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준다.

물론 일본내 제주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대판협찬회를 조직해보고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나 모임에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아 참가했던 기자와 오히려 언쟁만 높이게 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²⁷⁾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기금모금에 있어 당시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흡혈귀라 불리던 신기석(愼基錫)과 결탁함으로써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사실이다.

신기석은 상애회(相愛會)라는 것을 조직, 일본내 제주 출신의 방적여공들을 갈취하던 사람으로서 제주도사 겸 경찰서장을 지내기도 했고 제주공제회의 고급간부로도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친일인사였다. 당시 그는 일본 방적업자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에서 일부세력가들과 결탁하여 노동자모집허가증도 없이 교묘한 수단으로 97명의 여공을 모집, 방적공장에 파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그 방적여공들로부터 일금 1500원을 각출하는 등의 불손한 방법으로 제주중학기성회에 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었던 것이다.²⁸⁾

물론 이 계획은 대판의 수상서(水上署)에서 선채 조사 중에 방적공장 여공 수급문제의 내막이 탄로되어 신기석이 구속됨으로써 실패하게 되고 기성회 역시 급거 귀국하게 되지만 학교설립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

26) 『民衆時報』, 第7號, 1935年 10月 1日.

27) 이 문제에 대해 『民衆時報』는 “濟州中學期成會의 野率狂暴한 兩 特派員 보도안코 新聞記事를 트집 - 테리威脅의 修羅場에서 大阪協贊會組織을 討議-”라고 신문 머리말을 쓰고 있다.

28) 『民衆時報』 第8號, 1935年 10月 15日.

설립 자체를 포기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화북학교의 설립과 질적으로 대비되는 사건이다.

4. 결론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사실상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자 전국적으로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돼 사립학교 설립이 줄을 이었다.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학교들이 설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교육운동사와 학교제도사에 관한 연구간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을 탐구하였다. 연구 대상시기인 1900-20년대는 교육개혁기로서 조선 민중의 추진력에 의해 교육이 제도적으로는 향상되고 교육시설도 증대되었었으며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제주도에서도 교육구국운동 차원의 학교설립운동이 존재했었는지 교육제도사 측면에서 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중요한 결론은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은 교육의 이념과 교육제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독자적인 구상안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개한 실력양성운동과 함께 발전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교육열과 향학열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 학교설립운동은 민족통합의 기초를 마련할 중추적인 인물을 양성할 것이 기대되면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전체가 단합된 노력으로 학교설립운동을 전개한 사실은 한국교육사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